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8월 6일

### CUOMO 주지사, 이민 지원 사기로부터 뉴욕커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새 법률은 이민자를 등쳐먹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작년에 출범한 신미국인실을 성문화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민 관련 지원을 모색할 때 사기 또는 비행 가능성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새 뉴욕커들은 이제 이 타입의 사기를 단념시키기 위한 신규 범죄의 추가를 포함하여 더욱 엄격한 지원 제공자 요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지사가 작년에 출범시킨 뉴욕주 신미국인실을 주정부의 영구적인 담당 실로 지정합니다. 그 주요 목적은 이민자 집단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안을 보충하는 전주적 다언어 공익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민 관련 사기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경우 지원을 모색할 것을 장려합니다.

“뉴욕주는 전세계로부터 이민자를 환영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새 뉴욕커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고히 하는 새 법률로 그 유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여 오는 분들을 뒷받침할 것이며, 본인은 오늘 법안에 서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번역 요건을 높이고, 본 법 위반에 대한 민사 벌칙을 증대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데도 지원 모색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를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 직업인으로 믿겠음 오도할 목적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범죄 및 경범죄 이민 지원 사기라는 두 새 범죄를 창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주지사가 2013년 3월에 [출범시킨](#) 신미국인실을 성문화합니다. 이 실은 뉴욕주의 최근 이민 집단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작년에 이 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기반 기회센터와 통화료 무부담 다언어 핫라인(800-566-7636)을 통하여 [34,000 여명을 도왔습니다](#). 기회센터는 신미국인 영어를 가르치고, 귀화 미국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단체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신미국인실은 우리나라에서 조례에 의해 창설된 최초의 주레벨 이민실입니다.

상원의원 Rubén Díaz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에서 지원을 모색할 때 그들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자신을 등쳐먹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법률은 이민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확립합니다. 뉴욕주를 홈이라고 부르는 이민자들은 마침내 우리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 되려고 할 때 당연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원 신미국인 태스크포스의 의장이자 이민 지원 서비스 시행법의 발의자인 Marcos A. Crespo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지사의 헌신적인 지지 덕분에 우리 주에서는 더 이상 이민자를 마음대로 등쳐먹을 수 없습니다. 이 새 법률은 이민자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며, 이민자의 평생 저축을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증대하고, 이민자에게 그들의 도둑맞은 수수료를 회수하고 피해액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기가 이민건을 방해하였을 때 소구를 허용하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고, 신미국인실을 영구 설립하여 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일을 명확히 위임합니다. Cuomo 지사의 지지 덕분에 이것은 최근 외국에서 온 430 만 뉴욕커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공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오늘날 모든 뉴욕커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그의 공약 때문에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수 많은 어려움과 범죄가 예방될 것이며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통합되도록 도울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뉴욕주 주무부 장관 Cesar Peral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법 서비스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들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취약 집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뉴욕커들에게 이익이 될 전주적 경제 기회를 창출합니다. 저는 우리주의 신참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민 사기와 싸우는 주지사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의 총재 Steven Choi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은 뉴욕주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법안인 이민 지원 서비스 시행법에 서명하여 발효시킨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주지사실 및 Crespo 하원의원과 협력하여 이민 사기에 대한 새로운 보호를 제공하고, 이민자 공동체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서비스를 전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놓는 법안을 마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을 토대로 하여 뉴욕주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투자됨으로써 결국 우리 주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도록 주지사 및 신미국인실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법률은 상하 양원을 각각 S.6732-A 및 A.8947B 로 통과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